

사는이야기
영화
언론
여행
책동네

오마이TV

포토갤러리

오마이뉴스 지역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경남
전남동부
전북희망
미주소식
아시아

- 기사쓰기
- 기사제보
- 회원등록/수정
- 공개편집회의
- 기자회원 기사예고
- 게시판
- 기사쓰기·편집 Q&A

- ▶ OhmyNews 소개
- ▶ 기자만들기 안내
- ▶ 광고 안내

✉ 이 기사를 메일로
🖨 이 기사를 프린트
📧 [이 기사에는 '등록회
원'만 의견을 쓰실 수 있
습니다.]
이 기사 의견쓰기
📧 전체독자의견보기

생나무는 편집부가 정식기사로 채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생나무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자에게 있습니다. (밤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편집부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제목만 볼 수 있습니다.)

왕이 공녀를 어쩔다고요?

여성비하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한 대학강사

정규환 dominic1@hitel.net

여교사에게 차 시중을 시켰다가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한 끝에 자살해버린 교장. 일부 보수 단체에서 이 사건을 두고 '한국 교육의 죽음'이라고까지 추켜세우는 해프닝.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에서는 강의 중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대학 강사가 문제를 제기한 측에 "명예훼손 소송"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등 또 하나의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노경순(가명, Y대 사학과)씨는 이번 학기에 "일본근대사"라는 제목의 전공과목을 수강하게 되었다. 수업 중 "왕이 공녀를 따먹는다"는 담당 강사 P씨의 표현에 반감을 느낀 노씨는 이 말이 여성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여성커뮤니티 사이트 "언니네" 내 "00교수폭력사례집"이라는 커뮤니티를 통해, P씨의 발언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말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치는 말이지만, 적어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공적 공간인 강의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강의명-일본근대사

강사-○○○

강의실-○○○ 414호

강의시간-화요일 7,8,9교시

이 수업은 근대 일본에 대한 사학과 전공수업이다. 강사의 평소 언어습관은 거칠고 험한 말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지만 학생들은 대개 웃고 즐기는 편이다. 수강생의 절반 이상이 남학생이고 주로 고학번이다.

3월 12일 두 번 째 주 수업에서, 3시간 연강인 수업에서 한번의 쉬는 시간을 가진 후, 강사는 "왕이 공녀를 따먹으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 이런 말도 했다. "학생들, 수업이 지루하니까 편한 자세로 들으십시오. 남학생들 담배 펴도 상관 안합니다. (학생들 웃음) 창문 열어놓고 구석에 가서 피고 와도 상관 안합니다. 가장 편한 자세로 들어요. 다만, 여학생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죠. 여학생에 대한 예의를 안 지키는 사람은 내 딸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학생들 웃음)"

이 사안이 인터넷에 공개된 후, 사건은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다. 사적 제보를 통하여 사건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Y대 총여학생회는 이 사건을 대학 당국 (여학생처)에 통보하였고, 대학 당국은 해당 강사에게 주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강사 P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수업 시간을 통해 학교측의 공문 내용과 익명의 제보자에 대하여 강력히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P씨는 이날 예정된 강의 세 시간 가운데 두 시간을 할애하여 자신이 받은 공문 내용을 소개하고 반발하며, 토론을 빙

자하여 이 사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하였다고.

아래는 그 수업에 참여했던 노씨의 회고다.

P씨는 강의실에 들어오자마자, 칠판에 "공고"라고 적고 그 아래에 두 가지를 내용을 추가로 판서했습니다. 하나는 지금부터 '지정 좌석제'로 출석 체크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정되어있던 서평 발표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시 정각이 되자 자신이 며칠 전에 여학생처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는 말을 꺼내며 그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내가 3월 11일 신고한 내용에 대해 P씨에게 보낸 여학생처의 공문이었습니다.

P씨는 여학생처로부터 온 공문을 토씨하나 안 빼고 읽고 나더니 그 다음에는 내가 신고한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이 글은 학생들에게 읽어주라고 해서 읽는 겁니다'라는 말을 하더니 이번에는 자신이 여학생처에 보낸 회신 글을 읽었습니다. 자신이 여학생처에 보낸 회신 글을 역시 토씨하나 빼지 않고 읽었습니다. '공문을 받고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신고한 학생은 수업 전체의 분위기와 맥락을 언급하지 않고 비방했다. 마치 수업시간에 웃기려고 한 것처럼 써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은 하지도 않았고(따먹는다는 표현), 강의록이나 본인이 녹음한 테이프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기가 찬다. 아내와 친구인 변호사에게 보여주었다. 세 번째 단락의 흡연 이야기는 3시간의 수업이 지루하기 때문에 말했을 뿐이다. 공적인 일이고 나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에 회신을 보낸다'는 요지였습니다.

그 후에는 또 다시 이에 대한 여학생처의 재회신문도 읽어주었습니다. 회신문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도장이 찍혀있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여학생처로부터 온 공문은 도장이 찍혀있다면서 문건을 학생들에게 흔들며 보여주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공문은 계속해서 보관된다는 말도 덧붙이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했더라도 한번은 진심어린 사과를 하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씨는 당황스러웠다. 12일 신고한 이후, 3월 18일, 25일 수업에서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주 동안이나 기다리던 사과였다. 그러나 P씨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뉘두리에 가까웠다.

"P씨의 행동은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너희가 한번 들어 보라'하는 식으로 느껴집니다. 자신이 쓴 글이 교과서 읽히듯 토씨하나 안 빼고 읽히는 동안에는 '내가 뭘 잘못된건가...'하는 생각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신고한 행위나 여학생처의 처리 과정이 진지하게 전달되기보다 희화화 된 느낌이었습니다.

P씨는 자신이 회신을 보낸 시각이 새벽 4시 20분이라며 공문을 받고 며칠동안 잠도 못 자고 괴로웠음을 설명했습니다.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실제와 다른 날조 비방으로 쓰인 익명의 글 하나만으로 내막도 모른 채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으려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강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한 P씨의 의사에 대해, 관계자는 "행정 처리 어려우니까 그냥 웬만하면 조용히 처리하지?"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수업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특히 P씨는 인터넷 상의 익명 제보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공식적인 문서

로 대응한 학교 당국(여학생처) 측에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P씨의 주장에 따르면, 노씨의 익명제보는 사실과 다른 셈. 이게 대해 노씨의 의견을 계속 들어본다.

P씨는 "여학생처의 대응과정에 문제가 많았다.. 정해진 포맷에 내 이름만 넣어서.. 정신적 피해가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성희롱 용의자'로 지목한 것에 대한 피해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익명 게시판의 글은 추적도 가능하다. 공익성과 진실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게시자를 공개해야한다는 일본의 판례도 있었다'고도 말해 마치 제가 신고한 글이 사실이 아닌 듯 기정사실화하였습니다.

4월 2일, P씨가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고소하려한다'는 이야기를 총여학생회를 통해 들었습니다. 기가 막혔죠. 더구나 자신에 대해 희생양 운운하는 것은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처음에 신고할 때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익명으로 글을 쓴 것은 신고를 통해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의 글을 쓸 때, 선생님이 한 말이나 수업 분위기를 최대한 가감 없이 정확히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내용의 첫 번째 단락에 수업 분위기를 설명하려고 했고 그 뒤에 철저하게 선생님의 말만 옮기려고 했고 세 번째 단락에서 학생들의 반응까지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만 부정하고, 4월 1일 사과의 태도 역시 인정하는 태도라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임을 학생들에게 설득하려는 것처럼 생각되어 철회로 끝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1일 수업 중에 있었던 학생들과의 토론에서 당시 이 발언을 확인한 여학생이 있어 P씨의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한 여학생이 "따먹는다는 발언을 들은 것 같다. 그리고 나도 그때 담배 얘기 기분 나빴다. 종군 위안부에 대해 얘기하던 지난 주 수업시간에도 따먹는다는 표현을 한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P씨는 "그런 말 안 했다. 아마 누군가의 말을 옮긴 것일 거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 여학생이 "정확히 그 표현은 아닐 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였습니다"라고 반박하자, P씨는 "그것은 하나의 예로 든 것인데, 그것까지 말을 고쳐야 하나"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학생이 다시 "옳지 않은 표현이지만 누가 이런 말을 했다.. 라는 식으로 덧붙여 말해주어야 하지 않나"라고 재반박하자, P씨는 "앞으로는 예를 들 때 조심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많은 남학생들은 P씨의 해당 발언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학생의 발언에 이어 몇몇 남학생들이 힘이 빠진 선생님을 위로하듯 선생님 편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어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했을 때 문제되지 않는 말은 없다며 '널다'라는 표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들 때에도 말을 조심해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사이에 간간히 웃음도 터져 나오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마치 의견의 일치를 이룬 듯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수그러들면서, 한 남학생이 "신고 학생으로 인해 선생님도 정신적으로 괴로웠겠지만 학생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이 일로 선생님께서 강의 의욕을 잃어 생기 있는 강의를 들지 못한다면, 그리고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 전혀 예를 들지 않거나 농담하지 않으신다면 학생들도 피해를 입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여학생이 "선생님이 농담할 때 학생들이 웃는 바람에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했을 수도 있다. 그런 발언이 오히려 앞으로 선생님에게 직접 문제제기하는 데에 망설이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대응했죠.

사실, 이날 선생님의 언행 못지않게 당혹스럽고 입을 열기 어렵게 한 요인은 발언했던 남학생들의 태도였습니다. 선불리 말함으로써 신고자가 바로 나임이 드러나지 않을까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수업 중 강사가 "왕이 궁녀를 따먹는다"라는 표현을 했다면, 이 표현이 바람직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이 표현이 언어에 의한 성폭력에 까지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사건의 초점은 이 표현이 성폭력에 해당하느냐, 마느냐에 있지는 않다. 강사 P씨 자신이 발언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P씨가 발언 내용이 얼마나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셈.

사실, 이 일은 이렇게 까지 확대될 일은 아니었어요. P선생이 사과만하면 끝날 일이었는데, 사실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수업이 마치 수렴된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P씨가 공문을 읽어주는 태도나 그때 했던 말들은 전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식이었기 때문입니다.

Y대 여학생처와 총여학생회는 이 강사의 여성비하 발언에 대해 성희롱신고에 대한 절차를 준용하여 의례적인 대응에 나서다 느닷없는 강사 P씨의 "명예훼손 소송" 발언에 당황하고 있다.

한편 노씨 1일 이 사건에 대한 P씨의 적반하장격의 반응을 접한 후, 정식으로 학교 당국에 자신의 신분을 밝힌 채, 다시 정식으로 신고한 상태다. 노씨는 자신이 P씨의 수업을 비롯한 전공수업을 계속 들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길 원하는 상황. 그러나 학교 당국에서는 P씨가 실제로 소송을 걸어올 경우, 노씨의 신원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비치며, 이 사건이 소송으로 비화되기 전에 교내에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노씨의 심경을 들어본다.

학생들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을 경우, 선생님의 일방적인 사건에 대한 이해를 다른 학생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아 내가 신고자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의 분위기 상, 신고자는 편협하기 이를 데 없는 학생으로서 선생님에게 잘못된 고통을 준 가해자라는 식의 인식을 P씨와 남학생들이 끊임없이 주입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전 그 이후 시간 수업을 전혀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짜고짜 공문을 읽어주었던 선생님의 태도, 내가 쓴 신고 글이 읽혀지는 상황, 그리고 변호사와 익명공개 이야기에 불안해했습니다. P씨는 학생과 선생 사이에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나는 P씨를 신뢰할 수 없었고 힘없는 학생으로서는 그냥 철회를 하고 끝내는 방법밖에 없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신고를 통해 제대로 된 사과를 듣지 못했고, 오히려 나는 2시간 내내 초조해하고 당혹스럽고 불안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로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다른 학생들이 가졌다는 점, 다른 여학생들도 기분이 나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다들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점에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4월1일 P씨의 언행이나 그 후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한다기 보다는 자신이 당한 황당한 사건에 대한 토로인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거칠고 험한 말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왕이 궁녀를 따먹는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

인했거든요. "수업 내용을 봐도 그런 내용은 나올 수 없고,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녹음한 테이프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극구 부인했어요. 남학생들만을 한정해서 담배를 피라는 했다는 것도, 진짜 담배를 피우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담배를 피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겠지만, 실제로 담배 피어도 된다고 말했고 그것은 진심 같았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빴던 것은 담배를 피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말속에 여성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잠깐 마음먹었던 것처럼, 성희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월 11일의 발언과 4월 1일의 태도에 대해 P씨의 진심어린 사과를 공개적으로 받길 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인데도 힘들어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당신이 편협하다거나 조금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을 알리고 싶습니다.

2003/04/06 오후 4:21

[\[전체독자의견보기\]](#) [\[이 기사에는 '등록회원'만 의견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 의견쓰기](#) [이 기사를 메일로](#) [이 기사를 프린트](#)

>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추천수

1. 이거 지지해달라고 여기저기 광고하시더군요....

박영환, 2003/04/07 오전 10:12:43